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 지속 성장·공익활동 확산

12일 온라인 통합설명회 개최
시민사회조직 역량강화 지원
활동가 아이디어 발굴·실행
시민사회박람회·플랫폼 운영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가 올해 시민사회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는 12일 오후 온라인 통합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신년 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센터의 지원(공모)사업을 공유하고,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광주NGO지원센터를 법적으로 계승하며 출범한 광주시민사회지원

센터는 2025년을 시민사회조직 활성화와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원년으로 삼고, 시민과 시민사회의 신뢰와 존중을 받는 기관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시민사회조직의 역량 강화와 활동가들의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 발굴·실행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에 투입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익적 변화를 도모하고 광주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센터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도 시민사회 의제 발굴과 정책 개발, 시민사회조직 성장 기반 마련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먼저 시민공익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과 시민사회를 연결하고 공익활동을 공유하는 '시민사회박람회'와 활동가·단체·시민의 협력 프로

젝트를 지원하는 시민공익 '이음',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시민사회정보플랫폼' 등을 운영한다.

또 시민사회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컨설팅과 직무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포함한 시민사회 '키움'과 공익활동가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한 현장 리포트 및 지역의 갈등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공론장 지원 프로그램인 시민사회 '울림', 청년 공익활동 지원과 소규모 단체의 재도약을 돕는 시민사회 '새움'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내실을 다지는데 적극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광주공동체의 담론장인 '광주아고라-시민사회포럼' 개최와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서 시민

사회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해 동안 주요 이슈와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의 헌신과 열정이 담긴 시민사회보고서 발간, 광주 시민사회운동의 기록을 보존·공유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시민사회 활동가한마당 개최 등 시민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협력과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이기훈 광주시민사회센터장은 "올해 사업은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들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민원 서비스 평가 '최우수' 선정
복구, 5년 연속 달성

광주 복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광주 지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대민 접점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올해 평가는 전국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 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기관별로 '가~마'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복구는 고충 민원 처리, 민원 취약계층 배려, 민원 업무담당자 보호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으며, 국민신문고 운영에서 신속한 민원 처리와 충실한 답변으로 높은 주민 만족도를 기록했다. 이에 평가항목 전반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적극 운영해 주민들의 고충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소유권 이전 셀프등기 안내서' 제작 등 민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점이 주목받았다. 또한 장애인 편의 기능을 갖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장비 보급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문인 복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체감도 높은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2025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서구, 상생협력 7개 사업계획

광주 서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7일 노동계·경영계·주민·행정대표 등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노사민정 협력 사업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2025년 사업추진 계획 심의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구 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의회 운영 △노사민정 역량강화 워크숍 및 성과보고회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기업진단 및 경영환경 개선 포럼 △심리상담 등 '마음헤아림' △감정노동자 사회적 인식개선 홍보 △마음치유를 위한 힐링캠프 운영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사업 등 7개의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고용노동부 국비사업 공모의 주요 정책 방향인 '노동약자 보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고령자 계속 고용' 등을 중심으로 서구의 대표 복지정책인 '돌봄'과 관련한 정책사업을 광주 시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구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시장 개선, 고용안정, 사회적 인식 개선, 통합돌봄복지 실현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담은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서구 관계자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10여 년간 축적한 경험과 자산을 기반으로 상생과 협력의 길을 찾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광주 남구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가 지역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남구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가 운영되는 모습.

광주남구제공

남구 '놀이용품 공유센터', 경로당 활성화 기여

154곳 대상 조사...128곳서 호평
경로당 방문빈도·체류시간 늘어

광주 남구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가 지역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남구는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 이용 후 경로당 방문 횟수와 체류시간이 증가했다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지난해 어르신 놀

이용품 공유센터에서 각종 놀이용품을 대여한 실적이 있는 관내 경로당 15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경로당 90곳에서 방문 빈도와 체류 시간이 증가했으며, 68곳에서는 신체활동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가 경로당 이용 활성화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셈이다.

전체 경로당 154곳 중 150곳이 2회 이상, 41곳은 5회 이상 이용했으며, 128곳이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

히 놀이용품 배송·수거 서비스와 다양한 용품 제공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경로당 5곳은 불만족을 나타냈으며, 이는 노래방 기기의 장기 미대여 및 일부 놀이용품의 난이도 때문으로 분석됐다.

만족도가 높은 놀이용품은 구슬 퍼즐, 칠교놀이, 낚시 놀이였으며, 추가 구비를 희망하는 품목으로 치매 예방 퍼즐, 손 운동 용품, 미니골프·농구, 배드민턴 등이 꼽혔다.

윤준명 기자

동구, 기회·활력 만드는 '청년친화도시' 도약 총력

청년정책위, 56개 정책 확정·추진

광주 동구가 '기회와 활력을 만드는 청년친화도시' 도약을 위해 지난 6일 '동구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올해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을 심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

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구는 올해 480억원을 투입해 '기회와 활력을 만드는 청년친화도시, 동구'를 비전 삼아 △청년문화 △일자리 △교육 △주거·복지 △참여·권리 등 5개 전략 분야 56개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F&B 커머스 빌딩' 프로그램 운영, 청년세대 공

감 강연 '영 스피커' 운영,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1인 가구 청년 전·월세 안심 계약 지원 등 주거·복지 분야 사업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동구 청년센터 아지트(D.GIT), 동명청년창업소, 동구 청년의 집(ZIP)을 기반으로 청년거점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청년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현기 기자

보일러 교체시 최대 60만원 지원
광산구, 저소득층·복지시설 대상

광주 광산구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광산구 내 저소득층·취약계층 세대와 사회복지시설에 60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친환경 보일러는 겨울철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NOx)을 88% 감소시키고 에너지 효율도 기존 보일러 대비 최대 12% 이상 대기질 개선 및 난방비 절약에 효과 있는 보일러다.

지원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당 60만원이 지급되며, 보급 규모는 400대로 총 2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보급 규모가 110대가량 증가했으며, 지원 대상 중 다자녀 가구 세대의 기준중위소득 지원 조건이 70%에서 100%로 완화됐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탄·기름보일러 교체 시 인증받은 2종 LPG 보일러로 교체할 때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에코스퀘어 누리집이나 광산구청 기후환경과(별관 3층) 환경행정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관련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기후환경과 환경행정팀(062-960-897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철 기자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